

## 한국교육에서의 책무성

김 태완(한국교육개발원장)

### 1. 현재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사회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한국교육에서의 책무성”이란 무엇인가? 매우 어려운 질문이지만 쉽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현재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사회적인 요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청을 교육학자와 교육자들이 잘 담당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대사회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현재 한국교육을 살펴 보면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된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시험점수가 중요하다는 사회적인 믿음과 크게 관계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믿고 있다. 학교에서의 좋은 성적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결혼과 직장에서 성공과 연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바꾸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시험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험보고 잊어버리더라도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교육을 하게 된다. 또한 암기는 투입된 시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기 보다는 부모와 교사에 의한 선의의 권고 즉, 시켜서 하는 경향이 크고, 이것이 또한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왜 주입식교육을 할까? 주입식교육은 요점만 외우도록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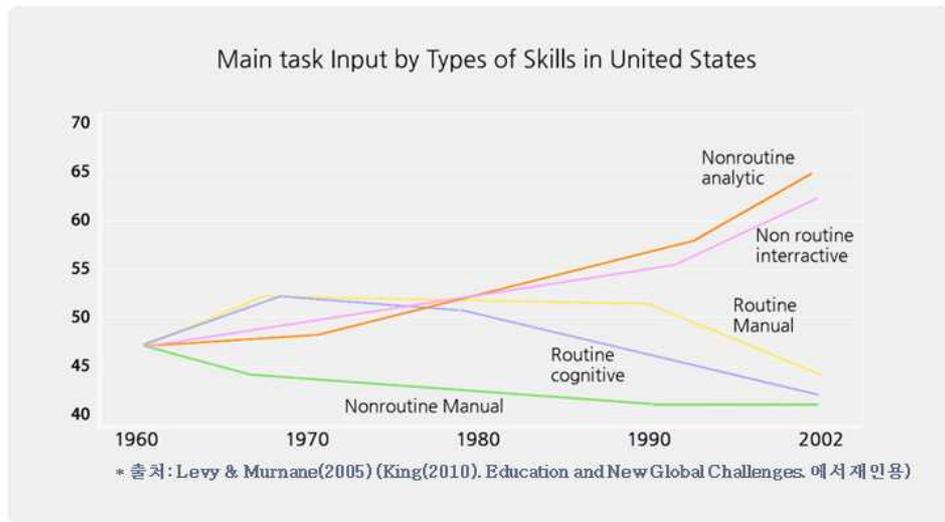
때문에 투입된 시간에 비교하여 볼 때 객관식 선다형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암기식 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도 행복하지 않고,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는 학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사회도 이런 교육이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는 무엇이 장기적으로 자녀와 학생의 발전에 중요한 지를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교육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그 책임이 교육전문가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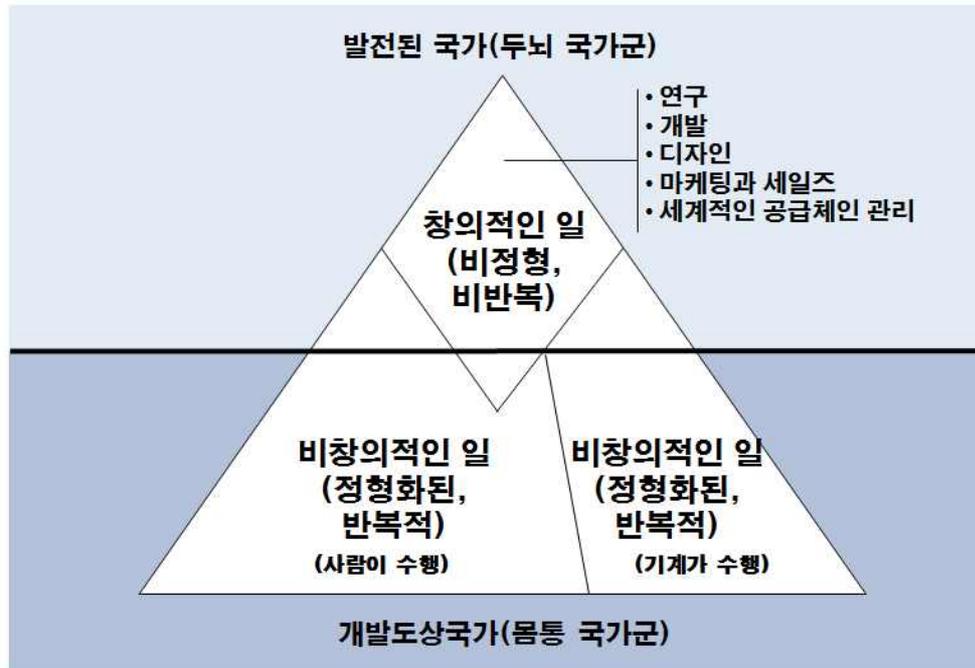
한국은 현재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의 하나인 미국의 경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부터 비일상적(비정형화된, 비반복적), 분석적, 상호작용적인 노동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일상적(정형화된, 반복적), 육체적인 노동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1) 경제 발전에 따른 숙련 유형의 변화(미국)**  
**(1960년대 이래 비반복적 분석적, 상호작용적 노동 급속한 증가와**  
**반복적 노동, 비반복적 육체 노동 감소)**



(그림 1)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 유형의 변화(미국의 경우)

이러한 노동 유형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하고 있는 노동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즉, 개발도상국은 비창의적(정형화된, 반복적)인 일을 사람이나 기계가 수행하고, 선진국에서는 창의적(비정형화된, 비반복적)인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물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도 비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계화된 생산시스템과 외국인 근로자가 하고 있다.



**Figure 1. The Future of 21<sup>st</sup> Century Work.**  
 Source: Adapted from National Center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2007.

(그림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하고 있는 일의 유형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구, 개발, 디자인, 마케팅과 세일즈, 세계적인 공급체인 관리 등의 일은 생각없이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정형화된 일이 아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과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작업을 해야 하며,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과 감성적인 능력,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 지식교육은 매우 잘 하고 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종종 다른 나라로부터 부러

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개발도상국 수준일 때에는 정형화된 일을 반복적으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정형화된 일을 비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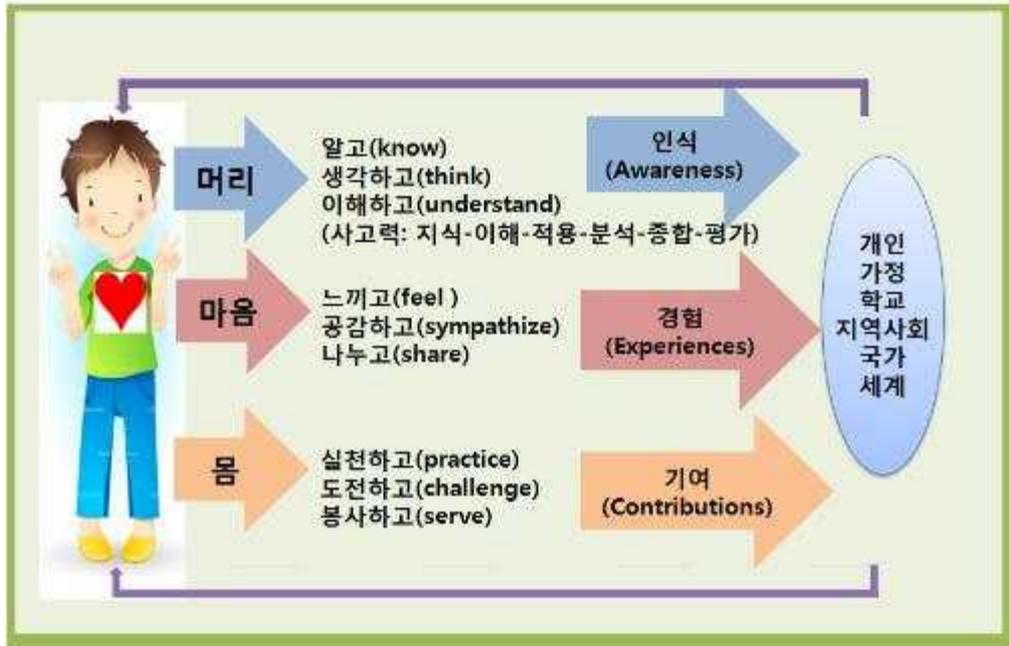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져야 우리가 원하는 노벨상도, 다문화사회에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사와 학부모는 학생과 자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 한다.

**2. 한국교육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시대사회적인 과제는 학생들이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생각은 느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생각의 탄생, 2007, p.19.)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많이 느끼고, 느낀 것을 생각하고,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머리는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일을 하고, 마음은 느끼고, 공감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몸은 실천하고, 봉사하고, 도전하는 일을 한다.

현재 우리 교육은 대부분 알도록 교육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즉,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봉사하고,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향후 우리 교육발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성교육 재개념화의 방향



(그림 3) 향후 한국교육 발전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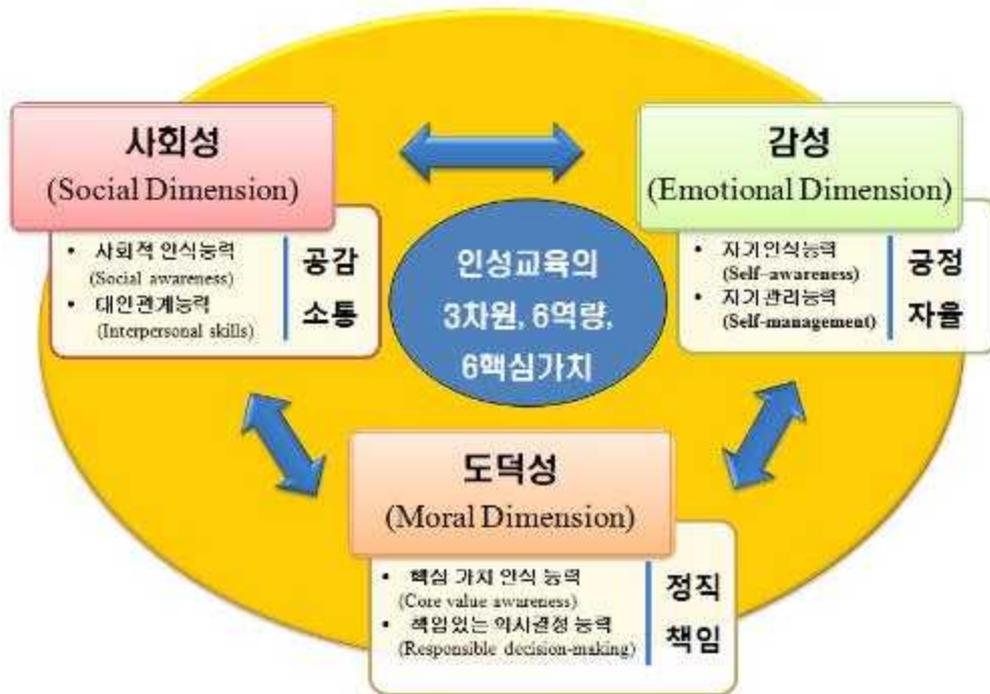
자료: 차성현(2012). 제6회 청람교육포럼 자료집 중 p.17. 그림1 재구성

이와 같이 지적 교육 측면에서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인성교육에서는 사회성, 감성, 그리고 도덕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그림 4 참고). 사회적 능력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들을 인식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능력의 핵심 가치는 공감과 소통이라 할 수 있다.

감성적 능력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알고 관리할 줄 아는 능

력을 말하며, 감성적 능력의 핵심 가치는 자신에 대한 긍정과 자율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적 능력은 사회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줄 아는 사고능력을 말하며, 정직과 책임이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인성교육 개념 및 요소



(그림 4) 인성교육 재개념화의 방향

자료: 차성현(2012). 제6회 청람교육포럼 자료집 중 p.18. 그림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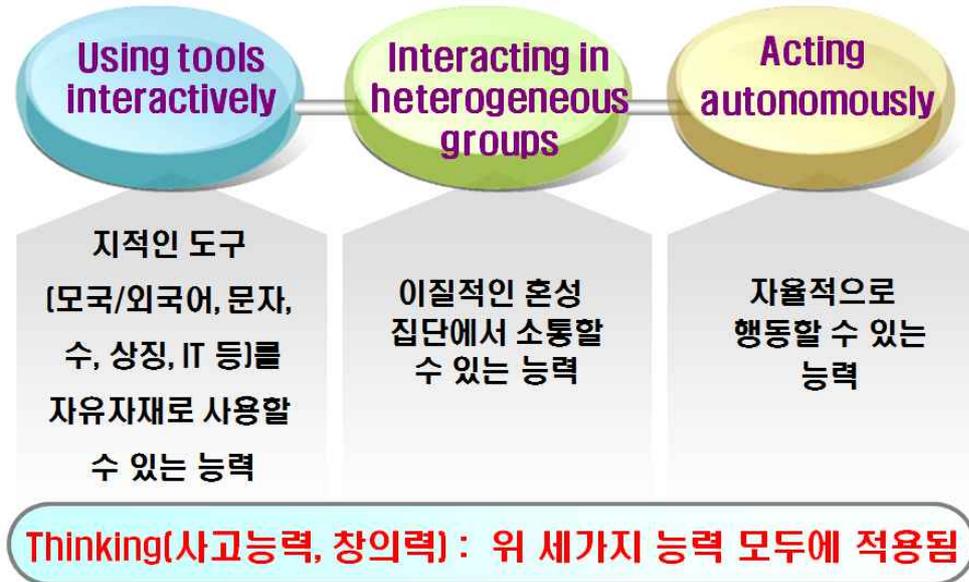
그동안 우리 교육은 아는 것에 치중해 왔기 때문에 감성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을 소홀히 해 왔다. 앞으로

교육은 우리가 소홀히 해 온 이 부분들을 제대로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학습(學習)은 배우고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는 몸에 익히는 것을 소홀히 해온 것이다.

서양에서도 교육과 훈련(education and training)은 항상 한 단어 같이 붙여서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교육은 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인성교육은 바로 감성과 사회성, 그리고 도덕성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감성과 사회성의 발달을 위해 예체능교육을 강화하고, 종래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해 실시하는 도덕교육은 정직성과 책임의식을 길러 주는 글로벌 시민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 3. 교육발전의 국제적인 동향

참고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 전문가들은, 향후 교육은 우리 2세들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그림 5 참고).



(그림 5) OECD 추천 21세기 핵심역량(DeSeCo, 2003)

그것은 첫째, 언어, 수, 컴퓨터 등 지적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능력을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지적 도구의 사용능력을 기르는 일은 비교적 잘 하고 있으나, 더불어 사는 능력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기르는 일은 잘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정형화된 내용을 반복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점수로 평가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긍심이 높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감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예·체능교육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핵

심역량 중심의 새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예·체능교육을 국어인 영어 다음으로 중시하고 있다(그림 6 참고).

**● New Zealand의 교육비전: confident, connected, actively involved lifelong learners**

- **핵심 역량: (1) thinking, (2) 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3) managing self, (4) relating to others, (5)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 학습 분야(Learning Areas)를 8 개로 분류하고, 분야별로 8 등급으로 정리함**

1. English
2. Arts(Dance, Drama, Sound Arts, Visual Arts)
3.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Home Economics)
4. Learning Languages(불어, 독어, 스페인어, 중국어, 원주민어 등)
5. Mathematics and Statistics(Number, Algebra, Geometry, Measurements)
6. Science(Living World, Planet Earth and Beyond, Physical World, Material World)
7. Social sciences(Economic World)
8. Technology(Nature of Technology)

(그림 6) 뉴질랜드의 교육비전, 핵심역량, 학습분야 예시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과 교사의 교수방법, 학생의 학습방법 그리고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4. 향후 학교교육 개선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

향후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보면, (그림 7)과 같이 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중심으로 하고, 수업과 학습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며, 평가는 4지선다형을 폐지하고 서술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체제의 변화이다.

	산업사회적 교육방식	지식사회적 교육방식
● 교육과정	교과교육 중심	핵심역량 중심
● 수업	주입식 암기중심	프로젝트중심 (project-based learning) 스토리 이해중심
● 평가	4지(5지)선다형 객관식 상대평가	서술식 주관식 절대평가

(그림 7) 산업사회적 교육방식과 지식사회적 교육방식 비교

(1)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을 폐지하고, 우리 사회나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과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물음으로서 사회와 자연의 현상과 문제를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모든 평가가 개선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 교육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을 폐지하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교육부는 2014년부터 객관식 사지선다형 시험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에 동의하는 주정부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시험은 이와 같이 주관적인 이해를 평가하게 되면 현재의 상대평가는 자연스럽게 절대평가의 형태로 바뀌어질 것이다.

**(2) 수업과 학습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주입식 암기중심으로부터 과제를 주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project-based learning)으로 한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교수, 수업 또는 학습의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있는 방식은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서로 협력하면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중심학습(project-based learning)방식이다. 프로젝트 팀내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팀간에는 경쟁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수행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을 경험하면서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아 둔 책이다. 방대한 내용을 싣기 위해 핵심만 소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 형식이 아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해하기 보다는 외우는 것이 편리하므로 대부분 외우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편집된 교과서는 학생으로 하여금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는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다. 전후맥락과 전개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 (3) 교과교육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핵심역량 개발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사회의 업무수행 방식은 나누어 점령하기(devide and conquer)이므로 교과목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같이 여러 교과목으로 나누어 가르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지식사회의 업무수행 방식은 통합적인 접근(converged and holistic approach)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통합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생명의 세계”, “물리의 세계”, “재료의 세계”, “지구와 지구너머” 등과 같이 교과목을 구분하면 통합하여 다루기가 쉬워질 수 있다.

역량 중심으로 가르치면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은 물론 암묵적 지식(implicit/tacit knowledge)을 동시에 익히도록 할 수 있다. 암묵적 지식은 그동안 잠재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의 내용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급하지 않았지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이 암묵적 지식과 능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암묵적 지식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먼저 느끼게 하고, 느낀 것을 말과 글, 몸짓 등 여러 형태의 표현수단을 동원하여 표현하게 하는 교육”이 교육과정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생각은 느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느낌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 예체능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댄스와 드라마가 음악, 미술과 함께 예술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뉴질랜드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다. 예체능교육의 장점은 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체험을 통해 몸에 익히도록 해줄 수 있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교육에서 부족한,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과 실천(실행)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줌으로써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5. 학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교육

이상에서 이야기한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은 교육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핵심 부분이 바뀌면 그동안 재미없고 하기 싫게 느껴졌던 공부가 학생들에게 좀더 싫지 않게 느껴지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습 내용과 방법, 학생들이 알고 실천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교육, 공부하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현재 우리 교육이 개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 사회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참고문헌

National Center on Education and the Economy(2007), *Tough Choices or Tough Times: The Report of the New Commission on the Skills of the American Workforce*. San Francisco: Jossey-Bass.

New Zealand Ministry of Education(2007), *The New Zealand Curriculum*.

OECD(2003),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Key Competencies)*

Root-Bernstein, R. and Root-Bernstein, M. (1999), *Spark of Genius*, Paris: Marcel Duchamp. 박종성 역(2007).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 서재.

Trilling, B. and Fadel, C.(2009),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John Wiley and Sons, Inc. 한국교육개발원 역(2012), 21세기 핵심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서울: 학지사.

차성현(2012). 제6회 청람교육포럼 자료집.